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1면	권성동 5선·한기호 4선 ... 강원 중진 의원 전성시대	1
강원도민일보	01면	국힘 6석·민주 2석...강원도 전석 현역 수성	2
江原日報	02면	강원 투표율 66.6% 2000년대 들어 최고	3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투표율 '66.6%' 28년 만에 최고 ... 양양군 1위	4
강원도민일보	17면	"양구 발전정책 필요한 예산 확보 앞장"	5
江原日報	05면	"공직 경력 살려 지역경제 위기 해결"	5
江原日報	01면	[알립니다] 오늘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회	6
강원도민일보	16면	철원향교 전교 이·취임식	7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이병선 속초시장·김진하 양양군수·김용복(고성) 도...	7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신영재 홍천군수·최상기 인제군수·엄윤순(인제) 도...	7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임미선 도의원	7
江原日報	21면	[동정] 윤길로 도의원(영월)	8
江原日報	21면	[동정] 강정호 도의원(속초)	8
江原日報	21면	[동정] 임미선 도의원(비례)	8
강원도민일보	22면	"우리도 정치참여 할래요" 청소년 모의투표소 북적	9
江原日報	12면	투표 마친 상춘객들 강릉 벚꽃 만끽	10
江原日報	13면	인제군 150억원 투입 위케이션센터 본궤도	11
江原日報	21면	원주매지농악보존회 문화재청 공모 14년 연속 선정	12
江原日報	20면	클래식, 봄을 연주하다	13
강원도민일보	09면	도내 아파트값 2주 연속 한파... 단순 꽃샘추위일까	14
강원도민일보	20면	오렌지군단 신입생, 다크호스 강원FC 이끈다	15
江原日報	23면	야구 꿈나무들 대열전 "초대 챔피언 노린다"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료 대란은 가장 큰 현안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이제는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고] ① 성장통 앓는 대한...	17
江原日報	19면	[특별기고] 강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치솟는 유가에 불안한 서민 경제, 대책 시급하다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평상심으로 돌아가 먹고살 일에 국력을 모아야	20

江原日報

2024 04 11 ()

01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 정당명 약칭: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국
※ 11일 0시 현재(최종 득표현황 www.kwnews.co.kr 참고)

춘천갑

허영(민) 유력

허영(민) 3만3,300
김혜란(국) 2만3,907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국)

한기호(국) 3만2,631
전성(민) 2만4,025

원주갑

경합

원창목(민) 3만5,215
박정하(국) 3만7,426

원주을

송기현(민)

송기현(민) 3만4,757
김완섭(국) 3만4,223

강릉

권성동(국)

권성동(국) 4만5,367
김중남(민) 3만6,267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국)

이철규(국) 7만7,887
한호연(민) 4만6,286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국)

이양수(국) 5만4,664
김도균(민) 4만3,204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국)

유상범(국) 6만6,459
허필홍(민) 4만9,148

권성동 5선·한기호 4선 ... 강원 중진 의원 전성시대

송기현·이철규·이양수 나란히 3선 고지 점령
與 전국적 참패 예상 속 강원 지역 비교적 선방
범야권 압도적인 승리 예측 ... 향후 정국 주목

4·10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나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재임성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색 강한 강원에서 의석을 확보하며 향후 세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강원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당선, 5선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 강원 최다선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에서도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동해·태백·삼척·정선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가, 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는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각각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합류했다.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선 이상의 여당 중진이 4명이나 배출된 셈이다. 이번에도 영동지역과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에서 보수정당 선택이 이어졌다.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서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주를 송기

현 후보가 3선에 올랐다. 영동지역 의석은 여당에 모두 내줬지만 원주에서 중진 의원을 배출하면서 민주당은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던 8명의 현역 가운데 6명이 22대 국회에 재임성하게 됐다. 현역 의원 '100% 공천'에 이어 여야 후보로 나선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분선에서도 계속된 셈이다.

여야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제시했던 목표 달성에는 일단 어느 한쪽도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 과반 의석 확보를, 국민의힘은 8석 전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적극 공을 들였던 원주에 발목이 잡혔고, 민주당도 영동지역 등에서 추가 의석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

춘천갑과 원주갑에서는 자정 넘어 서까지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0시 기준 춘천갑 50% 개표율에 민주당 허영 후보 56.89%,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 41.32%로 허영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원주갑은 개표율 63%인 상황에서 민주당 원창목 후보 48.47%,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51.52%로 두 후보가 엇박자처럼 승부를 다투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전국 개표율이 50%를 넘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 153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97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이 각 1석이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개표율 6.9% 기준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9.31%,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6.32%, 조국혁신당 22.24%, 개혁신당 3.20%다.

원선영·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01

국힘 6석·민주 2석...강원도 전석 현역 수성

4년 전 강원 여야 판세 재연
재선부터 5선까지 다선 다수
도 출신·연고 후보들 국회 입성
범야권 국회 과반 의석 전망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구 여야 현역들이 전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6곳, 더불어민주당은 2곳에서 승리하는 등 22대 총선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했다.

강원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소야대' 구조가 된 것과 정반대로 도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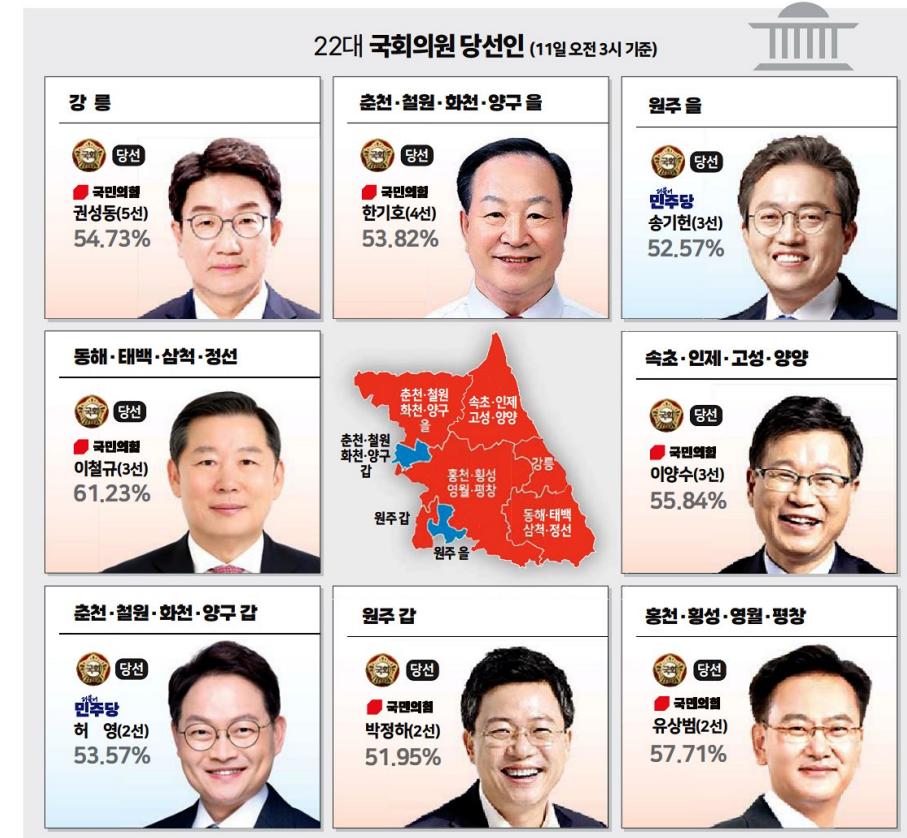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도내 현역 후보들이 모두 생존하면서 재선부터 5선 중진까지 배출됐다.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에선 민주당 허영(53.57%)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허당선인은 국민의힘 김혜란(44.49%) 후보를 9.08%p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춘천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이 통합된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에선 국민의힘 한기호 당선인(53.82%)이 민주당 전성(41.62%) 후보를 꺾고 4선을 확정지었다. 득표율 격차는 12.2%p다.

강원 총선 최대 격전지인 원주는 갑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박정하(51.95%) 당선인이 민주당 원창목(48.04%) 후보를 3.91%p 차이로, 을 선거구에선 민주당 송기현(52.57%)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완섭(47.42%) 후보를 5.15%p 격차로 각각 제치고 당선, 재선과 3선을 각각 확정했다. 강릉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권성동(54.73%) 당선인이 민주당 김중남(42.89%) 후보를 제치고 승리, 11.84%p 차이로 5선에 성공했다.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이철규 당선인이 61.23%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한호연(36.47%) 후보에게 24.76%p 격차로 승리해 3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국민의힘이 양수당선인이 득표율 55.84%를 기록해 민주당 김도균(44.15%) 후보를 11.69%p 격차로 누르고 3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유상범(57.71%) 당선인이 민주당 허필홍(42.28%) 후보를 꺾으며 재선 도전에 성공했다. 두

후보간 득표율 격차는 15.43%p다.

전국 각 지역구에 출마한 도출신·연고 총선 후보들도 선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연합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3번), 국민의미래 진중오 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4번) 등 강원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양구군 도의원 재선거에선 무소속 김왕규 후보가, 동해시 기초의원 나선거

구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주현 후보가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했다. 이어 양구군 기초의원 나선거 재선거에선 무소속 정창수 후보가, 양양군 기초의원 나선거 재선거에선 무소속 고교연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세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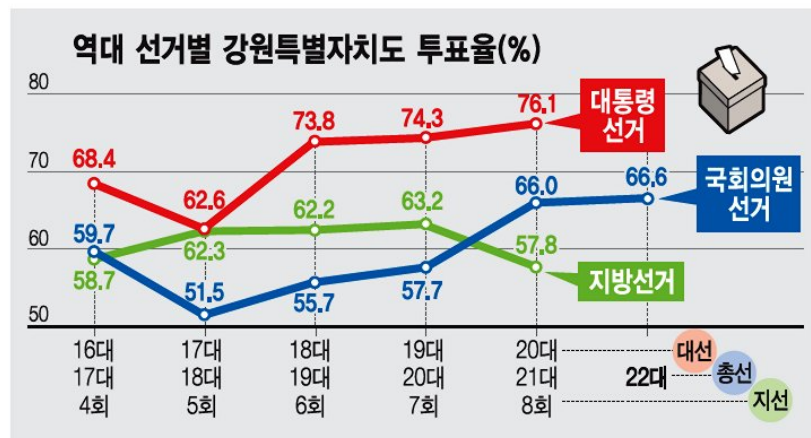
강원 투표율 66.6% 2000년대 들어 최고

21대보다 0.6%포인트 높아
17~20대 50%대 못 벗어나

강원지역 4·10 총선 투표율이 66.6%로 집계되면서 2000년대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실시한 강원지역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0%대를 보이다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66.0%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21대 총선 대비 0.6%포인트 높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총선 투표율은 2000년 16대 62.9%를 기록했지만 2004년 17대 59.7%로 떨어지더니 2008년 제18대에는 51.5%로 하락했다. 이후 2012년 19대 선거에서 55.7%, 2016년 20대 선거에서 57.7%, 2020년 21대 66.0%로 상승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도 국



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80%대를 웃돌았다. 1978년 10대 선거에서 84.8%, 11대 88.0%, 12대 89.5%로 90%에 육박했다. 그러나 13대에서는 82.0%, 14대 78.0%, 15대 69.3%로 시간이 흐를수록 7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방선거·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봐도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

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서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율을 모두 넘어섰다.

이번 4·10 총선 전국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만에 최고치다. 역대 전국 투표율은 2020년 21대 66.2%, 2016년 20대 58.0%, 2012년 19대 54.2%, 2008년 18대 46.1%, 2004년 17대 60.6%, 2000년 16대 57.2%였다. 이현정·최두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02

강원 투표율 '66.6%' 28년 만에 최고...양양군 1위

도내 88만7434명 참여 '상승세'

양양·고성 70%대...동해 최하위

전국 투표율 67%, 강원 10위

22대 총선 강원특별자치도 투표율이 66.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총선 강원 지역 투표율 가운데 28년만에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강원도 유권자 133만1959명 가운데 88만743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6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원 총선 투표율은 1985년 12대 당시 89.5%를 기록한 뒤, 15~16대에서 60%대로 떨어졌고, 2008년 18대 51.5%로 최하위를 찍었다. 이후 반등해 19대 55.7%, 20대 57.7%, 21대

22대 총선, 강원지역 투표율

	선거인수 (명)	투표자수 (명)	투표율 (%)		선거인수 (명)	투표자수 (명)	투표율 (%)
합 계	1,331,959	887,434	66.6	양양군	25,233	17,802	70.6
춘천시	246,971	166,566	67.4	인제군	27,802	18,791	67.6
원주시	307,788	202,468	65.8	홍천군	60,402	41,273	68.3
강릉시	183,936	120,811	65.7	횡성군	41,780	29,006	69.4
동해시	76,325	48,418	63.4	영월군	33,830	23,590	69.7
삼척시	55,708	37,648	67.6	평창군	37,113	25,772	69.4
태백시	33,912	22,490	66.3	화천군	20,107	13,462	67.0
정선군	30,979	21,066	68.0	양구군	18,079	12,593	69.7
속초시	71,222	45,222	63.5	철원군	36,018	23,019	63.9
고성군	24,754	17,437	70.4				

66.0%등상세였다.

이번 총선은 15대 총선 당시 강원 투표율 69.3% 이후 최고치다. 지난 21대 총선 보다는 0.6%p 소폭 상승했다.

22대 총선 강원 투표율은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강원 투표율(76.1%) 보다는 9.5%p 낮고, 같은 해 8회 지방

선거 강원 투표율(57.8%)보다 8.8%p 높다.

전국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2966만 23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강원지역 투표율이 전

국보다 0.4%p 낮다.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은 10번째 순위다. 세종(70.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순이었다.

제주(62.2%)가 가장 낮고, 이어 대구(64.0%), 충남(65.0%), 경북

(65.1%) 등이 낮았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선 양양군이 70.6%로 가장 높았고, 고성군(70.4%)도 70%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동해시가 63.4%로 가장 낮았고, 이어 속초시(63.5%), 철원군(63.9%), 강릉시(65.7%), 원주시(65.8%) 순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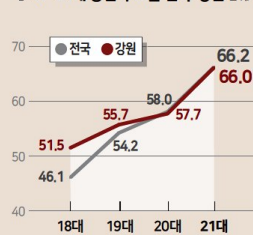
이밖에 △춘천시 67.4% △삼척시 67.6% △태백시 66.3% △정선군 68.0% △인제군 67.6% △홍천군 68.3% △횡성군 69.4% △영월군 69.7% △평창군 69.4% △화천군 67.0% △양구군 69.7%로 집계됐다.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강원지역은 32.64%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강원 총선 최고치였다.

한편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이설화 lofi@kado.net

18~21대 총선 투표율 전국·강원 단위/%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17

“양구 발전정책 필요한 예산 확보 앞장”

김왕규 양구 도의원 당선인

김왕규(61·사진) 도의원 양구선거구 재선거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당선을 시켜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선은 당선 기쁨도 있지만, 도의원의 역할과 무거운 책임감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며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양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인구소멸 위험뿐만 아니라 국방개혁으로 2사단이 이전해 지역경제는 심각한 사정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여년의 공직 경험과 인적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친화적관광문화도시 조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을 보듬는 복지정책 추진, 기반시설 확충으로 미래시대 대비, 인구소멸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등 공약을 이행하는데 힘을 쏟겠다” 말했다.

이동명

江原日報

2024 04 11 ()

05

“공직 경력 살려 지역경제 위기 해결”

양구 도의원 김왕규

양구도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김왕규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당선을 시켜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사단 이전으로 인한 인구소멸 및 심각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0여년의 공



직 경험과 인적자산을 최대한 활용,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살고 싶은 자연친화적관광·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파로호 주변 생태 및 소나무숲 테마마을, 백자의 고장 복합관광상품 개발과 백자의 식한옥단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을 공약했다. 양구=정래석기자

江原日報

2024 04 11 ()

01

알립니다

오늘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회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 한림대 등은 11일 오후 2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도 출신 및 도 연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및 시·군의장 등을 초청해 ‘새로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현안과 향후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도 단위 각 기관 등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중한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한림대서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주제로 열려
도지사·도의장·18개 시군 단체장·시군의장 등 한자리

- ◇ 일시·장소 : 11일 오후 2시 한림대 국제회의실
- ◇ 주 제 : ‘새로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 주 최 : 강원일보사, KBS춘천방송총국, 한림대
- 후 원 :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의회회장협의회

강원도민일보

2024 04 10 ()

16



철원향교 전교 이·취임식 철원향교 전교 이·취임식이 9일 향교명륜당에서 정만식취임 전교, 안창모이임전교, 박기준철원군의장, 엄기호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18



이병선 (사진 왼쪽부터) 속초시장·김진하 양양군수·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지영 도의원은 11일 오전 10시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15



신영재(사진 왼쪽부터) 홍천군수·최상기인제군수·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1일 오전 10시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11



임미선 도의원은 11일 오전 11시 춘천강원광복기념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 04 11 ()

21

◇윤길로도의원(영월)은 11



일 오후 1시30분
영월군 농업기술
센터 강당에서 열
리는 제16기 영
월희망농업대학
개강식(가공마케팅반)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4 11 ()

21

◇강정호도의원(속초)은 11



일 오전 10시30
분 속초고등학
교에서 열리는
속초고 운영위
원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4 11 ()

21

◇임미선도의원(비례)은 11



일 오전 11시 춘
천시 강원광복
기념관에서 열
리는 105주년 대
한민국 임시정
부수립 기념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22

“우리도 정치참여 할래요” 청소년 모의투표소 북적

춘천시 총선 참정권 행사 체험
운영 1시간만에 200여명 참여
정책제안 작성·공유 공간 마련

“초·중·고교생 모두 투표 가능해요! 기
표용지는 꼭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
투표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춘천
YMCA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
거 청소년 모의투표가 10일 춘천 명동
에서 열렸다. 투표권이 없지만 정치참
여를 희망하는 강원지역 청소년의 발
길이 이곳에 이어졌다. 춘천YMCA청
소년동아리연합회 등 지역청소년들이
거리를 오가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모
의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용지 전
달부터 기표소 안내 등을 도왔다. 황담
울(13·춘천 후평중 1년) 청소년모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춘천YMCA가 주관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소가 10일 춘천 명동 일대에서 열려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인이 되기 전
에 먼저 투표를 체험해보면 진짜 투표
권을 갖게 됐을 때 제대로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정책을 판단
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말고 정치에 목소
리를 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투표소 운영 시작 1시간도
채 안돼 청소년 200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제안을 직접 써서 공유하는 장도
이곳에 마련됐다.

모의투표 결과도 실제 총선 개표 결
과가 모두 나온 후 공개하기로 했다. 최
지애 춘천YMCA 춘천시청소년수련
관 부장은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도 일
정 부분 여론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와 함께 투표소에 온 김태유
(13·후평중 1년) 학생도 “부모님과 함
께 TV에서 본 후보자 관련 뉴스를 참고
해 후보를 택했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머니이모
씨는 “우연히 오게 됐는데 학부모들에
게도 많이 알려진다면 참여율이 높아
질 것”이라며 “학교에서 선거를 체험하
기 어려운데 참정권에 대한 이해와 경
험이 중요한 만큼 다른 지역으로도 확
대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번 청소년모의투표는 전국 곳곳에
서 열렸는데 강원지역의 경우 춘천에
서만 진행됐다.

김상현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한 교
육기관의 인식제고도 과제”라며 “춘천
에서는 6년째를 맞이하지만 학교나 청소년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4 04 11 ()

12

투표 마친 상춘객들 강릉 벚꽃 만끽

경포 벚꽃축제 마지막 즐겨
시 감성 야간 조명등 설치

【강릉】4·10 총선 임시공휴일을 맞아 강릉 경포 일대가 벚꽃 축제 마지막 날을 즐기기 위한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10일 경포 일대는 벚꽃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상춘객들까지 합세해 경포습지광장부터 경포 해변 입구까지 긴 차량으로 인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더욱이 남산공원 등 강릉 도심의 벚꽃이 점차 떨어지면서 벚꽃이 만개한 경포 일대로 상춘객이 분산돼 문전성시를 이뤘다.

전국 각지에서 몰린 상춘객



◇10일 강릉 경포 일대에서 열린 벚꽃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개한 벚꽃길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들은 경포 호수 곳곳을 거닐며 기념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 포근한 날씨 속 해변가에 누워 휴식을 즐기기도 했다.

특히 경포 벚꽃 축제의 주행사장인 경포습지광장 내 마련된 피크닉존은 돛자리 등을 챙겨나온 시민들로 이날 오전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영우(37·강릉시 교동)씨는 “자녀들과 벚꽃 놀이를 즐

기기 위해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며 “벚꽃이 지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도심보다 많이 피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개막한 경포 벚꽃 축제는 이날 폐막한 가운데 시는 감성 야간 조명등을 벚꽃이 질 때까지 설치해 상춘객을 반길 예정이다.

류호준기자 gwhojun@

江原日報

2024 04 11 ()

13

인제군 150억원 투입 위케이션센터 본궤도

군 16일까지 건축설계 공모
상반기 용역·내년 3월 착공
사무실·북카페·펍 등 구성

【인제】인제군 스마트위케이션 센터(이하 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2026년까지 국비 104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인제읍 남북리 아미산 일원에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센터 건축설계를 공모한다.

군은 올 상반기 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에는 민간기업이 체류할 수 있는 단독형·공유형 사무실, 세미나실 등 업무공간

과 일반 방문객을 위한 북카페, 휴게공간, 전망대, 루프톱 펍 등 편의시설이 함께 만들어진다.

아미산 일대는 인제읍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권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군은 아미산을 일과 휴식을 위한 핵심 관광지로 육성해 지역 곳곳에 분산된 관광객을 인제읍 시가지까지 유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봉산 박달고치 정상에서 아미산 위케이션센터 인근까지 집라인을 설치해 모험레포츠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최상기 군수는 “인제군의 청정관광자원을 연계,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4 11 ()

21

원주매지농악보존회 문화재청 공모 14년 연속 선정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시행
상설 공연·체류형 체험 운영

사단법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에 14년 연속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이다. 원주매지농악보존회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올 한 해 도무형문화재 제18호인 매지농악을 활용, 다양한 관람·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보존회는 원주매지농악 상설공연을 열고, 나만의 농기를 만들고 원주매지농악의 소고와 모듬북을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에 14년 연속 선정된 사단법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

사진 제공=원주매지농악보존회

한다. 올 6월과 7월에는 원주매지농악과 함께하는 산촌체험 체류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원주매지농악 체험은 물론 효소 담

그기, 시골음식 나누기 등 다채로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올 9월28일에는 전국 농악단체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열린다. 각 지역

의 특색을 가진 농악단체들이 벌이는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의 문화적 가치를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회촌마을과 함께하는 ‘생생계절장날’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보존회는 원주매지농악이 위치한 회촌마을과 축제를 연계, 한국의 김장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

보존회는 이 밖에도 올 한 해 원주매지농악전수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행사를 진행, 원주매지농악의 흥과 신명을 전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매지농악보존회 홈페이지(maej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오미기자 omme@kwnews.co.kr

클래식, 봄을 연주하다



◇원주시립교향악단(사진 왼쪽)과 춘천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4, 18일에 '2024 교향악축제' 무대에 오른다.

강원일보DB·춘천시립예술단 제공

교향악축제 무대 오르는 춘천·원주시향

춘천시립교향악단과 원주시립교향악단이 '2024 교향악축제' 무대에서 강원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2024 교향악축제에는 국내 23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 국내외 최정상 지휘자 및 연주자들과 협연에 나선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4일, 춘천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8일 각각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The Wave'라는 부제 아래 협연을 이어

갈 예정이다.

3년 만에 교향악축제 무대에 오르는 춘천시향은 이번 축제에서 송유진 상임지휘자와 호흡한 결실을 선보인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프랑크 '교향곡 d단조'로 이어지는 무대는 춘천시향의 기량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이번 축제에는 동아음악콩쿠르와 더들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를 차지한 주희성 피아니스트가 협연자로 나서

오는 14, 18일 예술의 전당
김정원 피아니스트 등 협연
12일 원주서 프리뷰 콘서트

기대를 모은다.

정주영 지휘자가 이끄는 원주시향은 이번 무대에서 스페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서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차이코프스키의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버트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Op. 19' 등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중견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무

대는 원주시향의 부드럽고도 강렬한 선율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주시향은 12일 치악예술관에서 '2024 교향악축제 프리뷰 콘서트'를 열고 한 발 일찍 청중들을 만난다. 매 무대마다 높은 관객점유율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원주시향은 교향악축제와 동일한 곡으로 구성된 무대를 마련, 시민들의 박수를 원동력으로 전국 무대에 오른다. 춘천시향 역시 교향악축제를 관람하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왕복 버스를 제공,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다. 김오미기자 omme@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09

도내 아파트값 2주 연속 한파... 단순 꽃샘추위일까

고금리에 놀린 부동산 시장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췄고, 강원지역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연속 최소 0.05%에서 최대 0.3%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강원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상승에 그쳐 현상 유지에 가까우며 3월 넷째 주(-0.05%)와 4월 첫째 주(-0.02%), 2주 연속 가격 내림세를 보였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결과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원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강원 아파트 가격 상승세 멈춰

2월 미분양 주택 3814세대

부동산 정책 혜택 수도권 쏠림

비규제 이점 없어 투자심리 위축

3월 도내 아파트 입주율 63.7%

전월비 4.6%p↓ 전국 평균 하회

입주 수요 '매매→전세' 전환

매각 지연·세입자 미확보 심각

■ 도내 아파트 매매 회복세 더디

정부의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반짝 증가세가 있기는 했으나 부동산 거래 침체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도내 아파트 매매는 1357세대로 전년 동월(1042세대) 대비 315세대(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군의 결과이지만 2021년 2월(2334세대), 2022년 2월(1676세



대)과 비교하면 완전한 회복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의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의 정책은 수도권 위주의 혜택이라 볼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는 강원지역의 비규제지역 이점을

소멸시켜 기대감보다는 경기 등 인접 지역으로 투자심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만 남았다.

■ 고금리로 매매 수요 감소... 강원 아파트 입주율 60%대 추락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며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도 회복

세가 더딘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권 아파트 입주율은 63.7%로 전월(68.3%) 대비 4.6%p 하락하며 전국 평균(68.4%)을 하회했다.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 2월 72%에서 60%대로 내려앉았다. 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 세입자 미확

보(23.6%), 잔금대출 미확보(21.8%)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강원지역 4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도 69.2로 전월(75.0) 대비 5.8p 하락하며 한 달 만에 60선으로 추락했다. 수도권(91.3)과 비교하면 22.1p나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다.

■ 4월 아파트분양전망 19.5p 하락

이달 강원지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71.4로 전월(61.5) 대비 9.9p 오르기는 했으나 지난 2월(90.9)과 비교하면 19.5p 낮았다. 전국 평균(75.5)을 하회했으며 수도권(89.9)과 큰 격차를 보였다. 청약이 활발히 진행되며 공급물량이 늘어났지만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으로 인해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3814세대로 지난해 말(4001세대)보다는 187호(4.7%)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21년(1648호), 2022년(2648호)에 이어 지난해 4000호를 넘어섰고 여전히 3000호 넘게 잔존한 상황이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택가격 전망과 미분양 추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향후 금리하락이 기대되는 시점이라 매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누적,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 활용을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증자리론, 청약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 사업자들의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입주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20

오렌지군단 신입생, 다크호스 강원FC 이끈다

강원FC가 새 얼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이번 시즌 K리그1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하나은행 K리그1 2024에서 현재 리그 5위(2승3무1패·승점 9)에 자리했다. 지난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원정경기에서 3-2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2연승을 달성해 시즌 초반 놀라운 득점력으로 축구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강원은 지난 시즌 개막 8경기 연속 무승(4무4패)에 그쳤다. 시즌 중반 윤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정규리그를 10위로 마무리해 간신히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았다.

윤정환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합대에 오른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강원은 겨울 이적시장에 기대감이 모였으나 사실상 물음표에 가까웠다. 이적료 지출 없이 FA로 이상현과 김이석을 영입했고,

K리그2에서 박정효, 김강국을 수혈했다. 제주유나이티드에서 데려온 이기혁은 지난 시즌 리그 19경기, 1014분(평균 출전시간 48분) 출전으로 활약 이满满했다.

그러나 물음표는 이제 느낌표로 바뀌었다. 단연 이상현이 그 중심에 있다. 6경기에서 7골을 쏟아냈다. 5라운드에서 득점 선두로 올라섰고 6라운드 멀티골로 득점 2위와 격차를 벌였다. 6경기 만에 벌써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7골 고지를 밟았다.

김강국과 김이석은 중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김강국은 부상으로 최근 2경기에서 결장했지만 리그 전

이상현, 6경기 7골 득점 선두

중원엔진 김강국·김이석 든든

수비 변신 이기혁 리그 패스 1위

GK 박정효 후방 전개 감초 역할

체 패스 16위, 키패스 2위 등에 올랐다. 경기당으로 환산하면 리그 정상급 패스수자다. 김이석은 리그 전체 패스 12위에 올라 있다. 강원의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원에서 굵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구단에서 측정한 기록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경기당 12km를 뛰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다. 김강국은 전방과 후방을 아우르면서 고강도 러닝이 많았고, 김이석은 좌우를 폭넓게 커버하면서 방향 전환의 횟수가 많았다.

후방에서는 이기혁과 박정효가 빛나

다. 강원은 올 시즌 후반 빌드업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다. 미드필더 출신 이기혁, 발밑이 좋은 골키퍼 박정효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중앙 수비수로 변신한 이기혁은 리그 전체 패스 1위, 공중 경합 1위, 클리어링 5위 등 기록에서 리그 정상급 수비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빌드업 기점으로 본인의 장점인 패스 능력을 심분 발휘하고 있다.

박정효는 지난 시즌 K리그2 최소 실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강원 축구의 후반 불안감을 지웠다. 시즌 개막 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강원에게 빼어난 경기력과 새 얼굴의 활약으로 올 시즌 '강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예선 yess@kado.net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강국·김이석·박정효·이상현·이기혁



江原日報

2024 04 11 ()

23

야구 꿈나무들 대열전 “초대 챔피언 노린다”

본보 주최 제1회 춘천시장기 리틀야구대회

전국 야구 꿈나무들의 대축제 ‘제1회 춘천시장기 리틀야구대회’가 12일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강원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과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한다. 춘천시, 춘천시의회, 춘천시체육회는 후원을 맡았다.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소속된 전국 리틀야구단 78개팀 1,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춘천 송암리틀야구장, 고구마섬 야구장에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78개 참가팀은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안기 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5일 대진 추첨을 통해 이미 대진표는 결정됐다.

2022년 강원일보가 주최한 ‘제8회 솔향 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천서구는 1차전에서 파주시와 맞붙는다.

내일부터 78개팀 1,500명 참가
송암·고구마섬야구장서 대결
결승전 21일 오전10시 펼쳐져

지난해 ‘제9회 솔향 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4강 진출팀인 광명시와 시흥시는 각각 의정부민락, 남양주한강과 첫 경기를 치른다. 도내 팀인 춘천유소년과 강릉시는 각각 화성시B, 부산연제구를 상대로 1차전 승리를 노린다.

결승전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송암리틀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우승팀은 우승상패와 메달, 기념품을 받고 준우승팀과 공동 3위팀에는 상패, 메달, 기념품이 전달된다. 개인상으로는 감독상과 선수상(모범상, 장려상)이 마련됐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을 비롯해 선수를 응원하는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춘천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 19

의료 대란은 가장 큰 현안

-정부·의사대화통해출구 마련하길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병원의 경영난은 심해 집니다. 의료 상황은 날로 악화하는데, 정부와 의사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이젠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하고 해법찾기를 희망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50일을 넘기자, 의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추가진료 축소 움직임도 우려됩니다. 이미 진료가 제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외래진료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의대 학사 일정은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한 결과,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40개 의대 중 한림대를 비롯한 16곳뿐입니다.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 원주의대는 오는 15일 수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수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2일 개강하는 강원대의대는 교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지속돼, 결국 직원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의정 갈등까지 터지면서 강원도내 의료원들의 존립 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지난달부터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행정 직원들의 임금을 6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으로서 정상화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 양측이 정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의료계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내분 논란에 오는 12일 예정됐던 의협·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의 합동 브리핑마저 취소됐습니다. 이젠 의료대란을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을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통일된 논리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물론,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기반 확충 등 전반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창구를 만들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11 ()

19

성장통 앓는 대한민국, '교육'이 해법이다

'이제는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고 ①

김현영
강원대 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출하는 4·10 총선이 끝났다.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모든 후보자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선거기간 동안 흩어졌던 지역주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야 할 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역 불균형 심화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소득,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으며,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공유택시나 에어비앤비(AirB&B), 챗GPT 같은 새로운 산업 플랫폼이 전통적인 산업과 일자리 시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초중등 교육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와 학습적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력, 협력과 같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 마지막 교육단계인 만큼,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제간 융합, 산학협력, 국제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T형 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T형 융합인재란,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협업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대학이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지학(地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은 단순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이 가진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분야인재 양성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OECD 평균의 67.5%에 그치는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스탠퍼드 대학, 독일의 '히든 챔피언(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10조엔(약 90조원) 대학 펀드'를 조성해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쌍일류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국 칭화대의 예산은 410억 9300만 위안(약 7조 5000억원)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해 예산과 맞먹을 정도다.

다행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교육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학 1개교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에서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춘천과 원주, 화천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5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전환과 함께, 도(道)는 대학 지원사업을 총괄할 '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지방비 5170억원을 비롯해 총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교육 발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국가가 발전한다.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그동안의 '성장통'을 극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활짝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4 04 11 ()

19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도민들의
깊은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원특별

자치도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160만 도민의 자존심이자 힘입니다.

당선자들은 도민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자이자, 법령 제정, 예산안 심의
확정,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4
년 동안 당리당락
에 의한 당의 정책
이 아니라, 강원특별
자치도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와 경제활동
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민이 잘
사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 정부 이래
지난 40여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
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160만 강원
도민의 열망을 담은 ‘강원특별자치

특별기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
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분
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강
원의 발전이 곧 지방시대의 구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목
표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 혁파로 자
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자율과 창의

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제도 정
비, 규제 개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선자들에게 강원특별자치
도를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
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법률 제정, 예산 확보는 거대 수
도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우선 정책
과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적인 열세로 인해 지역의 현안과 의

제, 예산 논의가 충
분히 이뤄지지 못
하는 현실과 마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자유와 인
권의 가치에 입각한 특별자치시대 도
약’은 도민의 열망이며 지방시대의
방향입니다. 또한 당선자들이 도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
202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
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강원특별자
치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시행계획
은 국비 24.6조 원을 포함해 총 42.2조
원의 투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자 강원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
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자들의
열정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
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강원
특별자치도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자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십과 열정을 기대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강원
의 발전이 곧 지방시대의 구현’의 주
역인 당선자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江原日報

2024 04 11 ()

/ 19

치솟는 유가에 불안한 서민 경제, 대책 시급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속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치솟고 있다. 유가 인상은 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서민 생계에도 큰 타격을 준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가게 지출은 증가하면서 가게 살림이 압박을 받으니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 불황이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국제유가는 올 들어 20% 가까이 올라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91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6달러를 넘었다. 국제유가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중동 산유국의 석유 관련 정책과 수급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남미 주요 산유국인 멕시코가 국내 공급 확대를 이유로 원유 수출을 대폭 감축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오는 30일 일몰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사라질 경우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재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유가에 적용되는 국제유가 상승분과 함께 유류세 혜택까지 사라진다면 도내 휘발유 가격은 1,900원을 넘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2개월 추가 연장이다.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국제유가 추세를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재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이 9번째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8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고유가는 무역수지 악화, 소비 둔화를 야기해 수출 호조세에 악재로 작용하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으로 이어져 금리 정책을 펴기도 쉽지 않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온기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은 속히 민생 챙기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민생 경제의 추락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반기엔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총선 기간 대과 논란에서 보듯 물가는 민생의 기본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4 11 ()

/ 19

평상심으로 돌아가 먹고살 일에 국력을 모아야

22대 총선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흥분과 대결을 마치고 총선 민의를 존중하며 각자가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갈등을 추스르는 데 협력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거는 유례없는 갈등과 혐오의 선거였다.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역사적 인물이 소환되고 지역과 여성을 혐오하기도 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갈등하고, 싸웠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한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 때문이었다. 정치

권은 분열된 국론을 다시 모을 책임이 있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층, 세대, 지역 대결을 부추기는 언동을 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더 이상의 분열 조장은 안 된다. 상대를 공격하던 상극, 공멸의 정치를 접고 상생, 공존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각 당은 신속히 당 내부를 정비하고 정당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대화의 화두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 수 있는가로 좁혀져야 한다. 올 한 해 우리는 내려앉은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의 몸집을 키워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았다. 지난해(1.4%)보다는 올라간 수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이것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경제의 역동

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에 불가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도 모두 투입해야 한다. 불가 안정 없이는 금리 인하 등 민생의 숨통을 틔울 백약이 무효인 까닭이다. 지난 1년간 나라 전체가 일은 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과연 이 나라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 수 있을까. 이제는 그야말로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결과는 민심으

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탄생된 선량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역 국회

22대 총선 성료, 민의 존중해 상생 정치로

성장 동력 살리고 민생경제 불 지펴야 할 때

지역 국회의원들, 현안 해결에는 정파 초월을

의원들의 활동은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의 현안과 숙원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제자리를 맴돌 때마다 국회의원 수가 적어 정치세가 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결집력 부족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지역의 이익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파를 초월한 결집이 필요했지만 번번이 당리와 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의 이익과 현안 해결에는 한 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